

찬스 살리지 못하는 박계범

등록 2021.10.17 15:36:22



[서울=뉴시스] 이영환 기자 =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더블헤더 1차전 경기, 3회말 2사 만루에서 두산 박계범이 내야 땅볼을 날리고 있다. 2021.10.17. 20hwan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